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

# 성기롤로병원

www.stcarollo.or.kr  
**NEWS**  
2026년 5월호

제333호 | 월간

등록번호 순천라 00007  
발행인 박명옥 편집인 홍보실  
발행처 성기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221  
대표전화 061-720-2000  
Fax 061-720-6000  
홍보팀 061-720-6477-8  
인쇄 도서출판 범촌

## 성기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기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23)

## 핵심가치

1. 생명존중
2. 전인진료
3. 역량강화
4. 소통과 화합
5. 사랑과 섬김



## 전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엄 성료

전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개최한 개소식 및 심포지엄이 4월 23일 지자체와 의료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별관 성심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고, 지역 내 중증 질환 대응을 위한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정광선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최운창 전라남도의회사회장, 김한웅 순천시의회사회장, 김주한 광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지역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심포지엄은 2부에 걸쳐 심도 있는 학술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급성기 치료’를 주제로 조장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과 홍영준 전남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우리 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여수제일병원 의료진과 함께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2차, 3차 예방’을 주제로 이영훈 원광대학교병원 예방관리센터장과 한재영 전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리 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의료진이 함께 재활 및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박명옥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는 우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안전망의 시작이자 완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장 신속한 협진 체계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 병원은 전라남도 중증 심뇌혈관질환자에게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 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2026. 4. 23(목) 14:00

성기롤로병원 성심홀(별관 6층)



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대한화학손상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대한화학손상연구회(회장 이태헌) 제2회 심포지엄을 4월 16일 우리 병원 성심홀에서 개최했다.

‘One step further!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전국 각지의 화학 손상 전문가들이 모여 임상 경험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중앙응급의료센터, 화학물질안전원, 소방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화학 재난 대응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실제 사고 발생 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명옥 병원장은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병원에서 화학 재난 대응 체계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재확인하고, 전남 동부권을 넘어 국내 화학 재난 대응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지영 수간호사



# 고흥·구례·보성 지역아동센터에 이웃사랑나눔 기금 전달

4월 21일 별관 1층 보로메오룸에서 진행한 ‘2026 이웃사랑나눔 기금 전달식’에서 고흥·구례·보성군 내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총 1,600만 원을 전달했다. 본 사업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성가롤로자선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고흥·구례·보성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선정해 지원에 나섰다.



지원 물품은 압력밥솥, 냉난방기, 컴퓨터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교체뿐만 아니라 센터 내 벽면 페인트 보수와 같은 실질적인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고흥군(고흥, 녹동제일, 녹동중앙, 대흥, 도덕, 믿음, 참빛), 구례군(두드림, 산가람, 자람), 보성군(꽃채운, 마리아, 보성, 보성주봉, 예당, 회령) 지역아동센터이다. 우리 병원은 취약계층 지역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성장을 위해 ‘이웃사랑나눔 가롤로투게더’ 사회공헌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1억 3,6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였다.

- 사회복지팀 원내향 주임

**예방관리센터**  
**박경수 센터장**

전남대학교 의학과 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취득  
전남대학교병원 인턴 수련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레지던트 수련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목포중앙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  
전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전문분야: 역학, 보건관리

**영상의학과**  
**이승욱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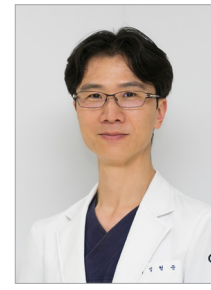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학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턴수련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레지던트수련  
성가롤로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여수중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분야: 신경두경부영상의학

**응급의학과**  
**명재영 과장**

충북대학교 의학과 학사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인턴수련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레지던트수련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촉탁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촉탁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문분야: 응급의학

전문의 초대석

# 대장암 예방의 실질적 완성: 용종 절제 이후의 전략적 관리와 추적 관찰



**약력**  
전남대학교 학사  
광주기독병원 수련  
소화기내과 전문의  
순천한국병원 내과 진료과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목포중앙병원 소화기내과 진료과장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내과 진료과장  
목포시의료원 내과 진료과장  
현재 성가톨릭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전문분야**  
소화기내과 명형준 과장  
간질환, 위장질환, 내시경, 소화기내과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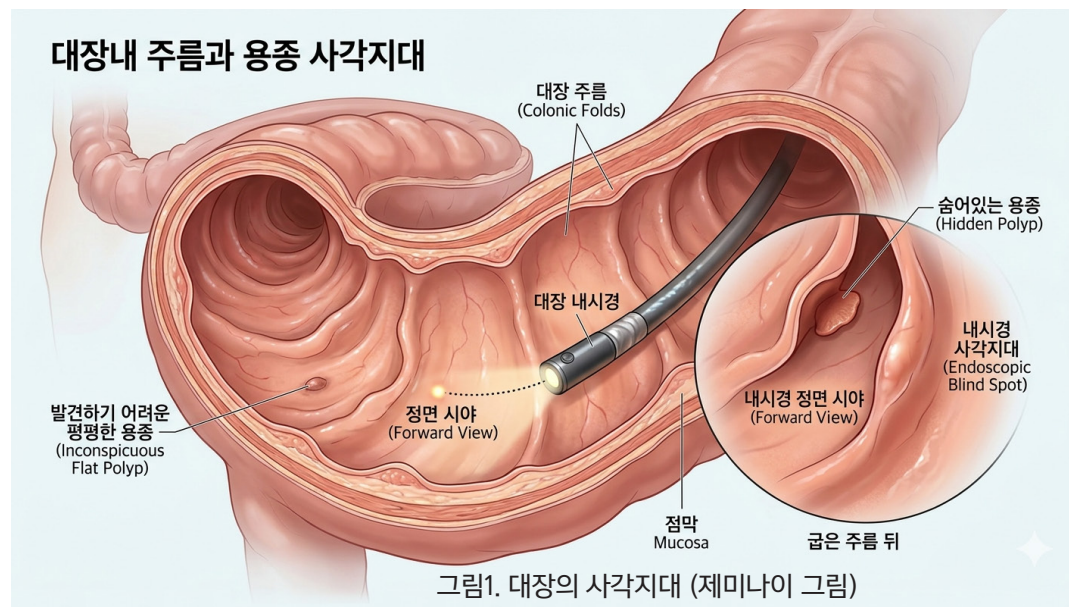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Polyp)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암 발생률을 70~90%,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기 검진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가 “용종을 제거했으니 이제 몇 년간은 아무 걱정 없겠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용종 절제는 암 예방의 ‘완성’이 아닌,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관리’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대장암 예방은 정확한 검사와 함께 조직 검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사후 관리가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 중간암(Interval Cancer)의 실체: 정기 검사 후에도 암이 생기는 기술적 원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권고 주기 이전에 진단되는 대장암을 ‘중간암’이라 정의합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대장암의 약 3~9%가 여기에 해당하며, 특히 우측 대장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암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 기술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병변의 누락(Miss rate)입니다. 대장은 약 1.5m의 길이에 수많은 굴곡과 주름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관 모양의 장기입니다. 간만곡부나 비만곡부처럼 급격히 꺾이는 부위, 혹은 주름 뒷면에 숨은 용종은 숙련된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장 정결이 완벽하지 않으면 놓칠 가능성이 큼니다. 학계에서는 ‘선종 발견율(Adenoma Detection Rate, ADR)’을 내시경 의사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삼는데, ADR이 1% 상승할 때마다 중간암 발생 위험은 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불완전 절제(Incomplete resection)입니다. 용종을 제거할 때 미세한 선종 조직이 가장자리에 남게 되면, 이것이 잔류 병변(Residual lesion)으로 남아 빠른 속도로 다시 자라나 암으로 진행됩니다. 셋째는 생물학적 가속화입니다. 일반적인 선종-암 경로(Adenoma-Carcinoma Sequence)보다 암으로의 진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특수한 유전자 변이 병변들이 존재하며, 이는 정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 장 정결(Bowel Preparation): 검사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 변수

많은 환자가 장 정결제 복용의 고통 때문에 복용량을 임의로 줄이거나 복용 지침을 어기곤 합니다. 하지만 장 내에 소량의 변 찌꺼기나 탁한 액체가 남아 있으면 점막의 미세한 색조 변화나 혈관 패턴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저잔사식(Low-Residue Diet)의 의학적 근거: 검사 3일 전부터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 나물, 해조류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인간의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대장까지 형태가 유지되며, 장 점막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용종을 찾기 위해 분사하는 세척액의 흡입관을 막아 검사 정확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수박 씨나 깨, 견과류 등은 장벽에 붙어 용종과 구분이 모호한 ‘시각적 잡음’을 유발합니다.

분할 복용법(Split-dose)과 BBPS 점수: 정결제를 검사 전날과 당일 새벽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장 정결 점수(Boston Bowel Preparation Scale)를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일 새벽 복용분은 우측 대장에 고인 담즙과 점액을 깨끗이 씻어내어, 발견이 매우 까다로운 납작한 형태의 ‘톱니모양 용종’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대변이 찌꺼기 없는 투명한 노란색이어야만 검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직 검사의 병리학적 해석: 현미경이 알려주는 암 위험도

내시경으로 제거한 용종의 임상적 실체는 육안적 관찰이 아닌 현미경 분석(Pathology)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 결과는 향후 추적 관찰의 주기를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선종성 용종(Adenoma): 대장암의 가장 흔한 전구 병변입니다. 세포의 변형 정도(Dysplasia)가 심한 ‘고도 이형성’을 동반하거나, 현미경상 유두상 구조(Villous structure)를 포함한 경우 암 진행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톱니모양 병변(Serrated lesions): 주로 우측 대장에 발생하며 점막과 색상이 비슷하고 납작한 형태를 띕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특수한 유전자 변이(CIMP, BRAF 변이) 경로를 통해 암으로 변하며, 진행 속도가 빨라 ‘숨어있는 암살자’로 불립니다. 톱니모양 폴립은 내시경 의사의 관찰력과 장 정결 상태가 결합될 때만 정확히 진단될 수 있습니다.

다발성 선종: 선종이 3~5개 이상 발견된다면, 이는 해당 환자의 대장 환경 자체가 용종이 자라기 쉬운 ‘토양’임을 의미하므로 더 짧고 정밀한 추적 주기가 요구됩니다.

### 선종-암 진행 경로 (Adenoma-Carcinoma Seq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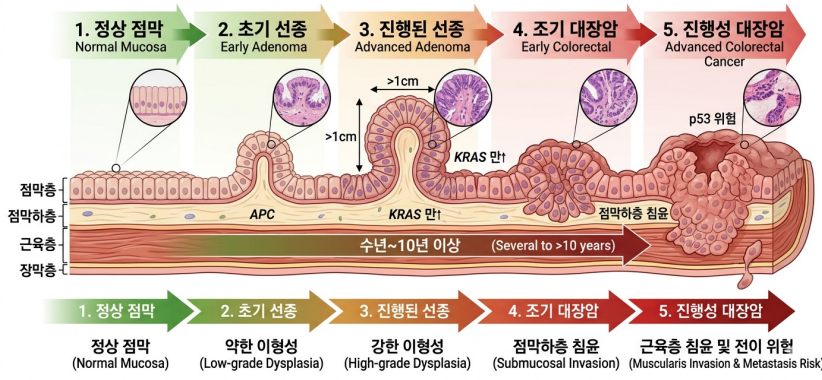


그림2. 선종-암 진행경로 (제미나이 그림)

### 나침반이 되는 추적 검사 가이드라인 (학술적 추론 포함)

용종 절제 후 다음 내시경 시점은 국내외 소화기내과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정됩니다.

1년 후 재검사(고위험군): 10mm 이상의 거대 선종, 고도 이형성을 동반한 경우, 5개 이상의 선종이 한꺼번에 발견된 경우입니다. 특히 2cm 이상의 큰 용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거한 '조각 절제(Piecemeal resection)' 환자는 국소 재발률이 10~20%에 달하므로 6개월~1년 내 반드시 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 후 재검사(저위험군): 10mm 미만의 작은 선종이 1~2개 발견된 경우입니다. (의학적 추론: 환자의 가족력이나 흡연 여부에 따라 이 주기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검사 실패와 조기 재검사: 장 정결 상태가 불량하여 관찰이 충분치 않았다면, 발견된 용종이 없더라도 6개월~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중간암' 예방을 위한 표준 지침입니다. 타협적인 장 정결 상태에서의 검사는 암 발생을 방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합병증 예방과 고령·고위험군을 위한 임상적 조언

대장내시경은 전신 상태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시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혈전제 관리: 심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경우, 시술 전 약물 중단 시점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의 조기 중단은 혈전 형성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불충분한 중단은 용종 절제술 시 대량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후 7~10일 사이에 발생하는 '지연성 출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과 정결제 선택: 최근 선호되는 특정 알약 형태나 고삼투압 정결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신전성 급성 신손상(Prerenal AKI)'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만성 신질환자나 고령자는 반드시 수액 요법을 병행하거나 신장 독성이 적은 제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령 환자의 실익 평가: 75~80세 이상의 고령자는 검사의 암 예방 실익보다 검사 준비 과정에서의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폐 기능 저하, 장 천공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력과 과거력을 종합하여 개인별 특성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대장암 예방의 완성은 의료진의 정밀한 시술과 환자의 철저한 준비가 만날 때 비로소 달성됩니다. '용종을 떼었으니 이제 끝'이라는 생각은 예방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진이 권고하는 조직 검사 결과 기반의 추적 주기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또한, 정기 검사 주기 내라 하더라도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빈혈, 가느다란 변, 혹은 혈변이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와 자신의 몸에 대한 세심한 관찰만이 대장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 로라제팜(Lorazepam)



로라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속하는 약물로 뇌에서 신경흥분을 억제하여 불안 및 긴장을 감소시킨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협우각 녹내장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 중증의 호흡부전 환자,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 주의 사항

■ 우울증이나 우울성 불안에 단독 사용시, 자살경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 혈압 저하가 심혈관 또는 뇌혈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 졸음이 오거나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동능력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일반적인 항불안 효과 목적으로 투여할 때에는 가능한 단기간(2~4주) 투여하고 총 투여기간은 4~12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재평가하고, 투여를 중지할 때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감량한다.

■ 장기간 투여 시에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및 요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  
 ■ (정제) 12세 이하 소아, (주사제) 18세 이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 임신후기 여성,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 고령자는 적응 용량에서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등 신중하게 투여한다.

### 효능효과 및 약리작용

로라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 약물로, 뇌의 GABA(gamma-aminobutyric acid) 수용체에 작용하여 GABA의 뇌에 대한 억제 효과를 증가시켜, 불안 증 환자의 신경흥분 억제효과를 강화시켜 진정을 유도한다.

### 용량 및 용법

[정제] 1일 1~4 mg의 용량을 2~3회로 나누어 투여 (신경증/정신신체장애: 1일 10mg까지 투여가능)

[주사제] 마취 전 투약: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0.05mg을 투여  
 급성불안: 체중 kg당 0.025~0.03mg을 6시간마다 투여

- 원내약: 아티반 정 1mg, 아티반 주사 4mg/ml
- 원외약: 로라반 정, 스텐반.

### 금기

- 근이완 작용에 의한 증상 악화 우려로,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 항콜린작용에 의한 안압 상승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급성

### 부작용

- 흔한 부작용: 진정
- 일반적 부작용: 어지러움, 졸음, 불안정, 두통, 저혈압, 쇠약감, 호흡부전  
 글: 약학정보원 | 정리: 약제팀 신유리 약사 | 그림: 드럭인포 일부수정





# 변비·복부 팽만 고민이라면... 장 건강 지키는 '통곡물' 4가지



변비로 인한 복부 팽만과 불편함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식습관 개선, 그중에서도 '섬유질 섭취'다.

섬유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불용성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늘려 장운동을 촉진하고,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는다. 통곡물은 이 두 가지 섬유질을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배변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다.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통곡물 4가지와 함께,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알아보자.

## 귀리

섬유질의 하루 권장량은 여성 25g, 남성 38g이다. 귀리 반 컵에는 약 4g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여성 기준 16%, 남성 기준 약 11%를 충족한다.

귀리는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이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어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효과적인 통곡물 중 하나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연구 결과에서 베타글루칸은 장운동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리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

오틱스인 저항성 전분의 좋은 공급원이라고 설명했다. 귀리는 스무디, 오버나이트 오트밀, 베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 퀴노아

조리한 퀴노아 1컵 분량에는 5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 퀴노아는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미량 영양소와 수용성·불용성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또한 소화관 근육을 이완시켜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돕는 마그네슘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 통밀

통밀은 다른 통곡물에 비해 특별히 섬유질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식단에서 밀 제품이 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통밀은 변의 부피를 늘리고 규칙적인 배변을 돕는 것 외에도,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증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 흰 빵이나 파스타와 같은 정제된 밀 제품을 통밀 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식단에 섬유질을 늘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 보리

익힌 보리 1컵 분량에는 약 6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 보리에는 귀리와 마찬가지로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프, 스투, 곡물 볼에 보리를 추가하면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을 식단에 간단히 포함할 수 있다.

**건강한 배변 활동을 위한 생활 습관 팁**  
통곡물 섭취 외에도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있다.

- 충분한 수분 섭취: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쉬워진다.
- 가벼운 신체 활동: 신체 활동은 장 근육 수축을 자극하여 장 내용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다.
-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마음 챙김과 같은 스트레스 감소 기법은 소화를 개선하고 규칙적인 배변 유지에 도움이 된다.
-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건강한 호르몬 패턴과 배변 활동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에 중요하다.
- 의식적으로 식사하기: 천천히 먹고, 음식을 충분히 씹고, 포만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적인 식사 습관은 장 건강 개선과 규칙적인 배변에 도움이 된다.

영양팀 이상은 영양사  
출처: 하이닥 | 그림: 제미나이

332호

# 4월

**가롤로퀴즈정답 & 당첨자(5명)**

이세창 | 구매관리팀    문현주 | 응급병동  
신수빈 | 병리팀        오행선 | 외래간호과  
위재정 | 외래간호과

\*이번 달 퀴즈를 추천한 부서는 간호부입니다.

1. 우리 병원이 최근 도입한 장비로, 자기장을 이용해 뇌 심부를 자극하여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최신 장비는 무엇인가? Deep TMS
2. 우리 병원은 퇴원 환자들이 병원 문을 나선 뒤에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천·여수·광양시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 ① 페루 푸칼파 공동체에 아동 급식 및 교육 지원 기금 1천만 원 전달
  - ② 2026년 1분기 환자안전관리 우수부서 선정
  - ③ **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개최**
  - ④ 다빈치 로봇수술 100례 달성


##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불우환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 관리 규정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 예 금 주: (재)천주교가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700-107-500533  
광주은행: 1127-020-225740  
농 협: 317-0005-2620-81
- **후원문의 | 재무경영팀** ☎ 061)720-6420~1
- 후원 해 주시는 분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법인 포함)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6.4.1.~4.30)**  
고호문, 김영진, 박종혁, 송무길, 어성남, 유일환, 추태선, 경진기업, 동성메딕스, 삼일티앤씨, 지성메딕텍, 익명 1명, CMS약정자 12명

\* 이 외 매월 발전기금을 약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음 묵상 | 성령 강림 대축일

# 고통의 밤을 밝히는 치유의 불꽃



창밖의 풍경은 계절을 따라 흐르지만, 병실의 시계는 때로 고요한 멈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거센 풍랑 속에서 고단한 몸을 누인 환우 여러분, 그리고 그 곁에서 생명의 등불을 지키는 보호자와 의료진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여시는 성령의 위로를 전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사도들에게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사도 2,2)

질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손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도 굳게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세운 절망의 벽을 허물고, 그 틈 사이로 하느님의 무한한 권능을 불어넣으십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지친 이마를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태풍처럼 몰아쳐 우리 안의 어두운 근심을 몰아내시는 그 숨결이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은 “불꽃 모양의 혀들”은 정화와 증언의 상징입니다. (사도 2,3)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워 정결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련의 시간도 단순히 아픔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어내는 정화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십니다. 비명과 탄식 대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진리의 혀’를 허락하십니다. 그 언어는 환우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가 되고, 서로를 치유하는 따뜻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 칠은(七恩)을 청하며, 이 긴 투병의 여정을 견딜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는 슬기와 통달, 막막한 선택의 기로에서 빛이 되는 의견, 그리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는 용기. 이 은총들이 모여 우리 삶에는 세상의 향기와는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23)

환우 여러분의 고결한 인내와 의료진의 따스한 호의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전입니다. 비록 몸은 비좁은 침상 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희망의 하늘을 날아 오를 것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주님께서 건네시는 이 짧은 인사는 오늘 성령의 숨결이 되어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고통은 결코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놓아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여러분의 투병 의지를 깨우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치유의 기적을 꽃피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려놓아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촌동성당 주락권(세례자요한) 신부  
상단 그림: 성령 강림, 장 레스투 2세, 1732, 루브르 박물관 소장



## 이달의 친절직원

### 간호부 9B 병동 전체



- 중환자실에서 올라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보호자보다 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빠른 호전을 보여 퇴원합니다.
- 말을 투명하게 내뱉는 저희 아버지를 친절하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열심히 간호해 주고 친절히 설명해 줘서 수술 잘하고 좋아져서 퇴원합니다.

### 간호부 산부인과 이선옥 책임간호사



- 간호사님께서 엄마를 기억하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잘 배려해 주신다고 하세요. 한 번은 보담으로 떡을 사 가셨는데, 바쁜 와중에 병원 제과점에 뛰어가서 롤케익을 사서 엄마 손에 쥐여 주셨다고 해요. 부드러워서 집에 계신 아버지 드시기에도 편하실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서 통화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엄마를 단순히 환자로만 대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 관리부 원무팀 김병욱 사원



- 퇴원 시 돌아갈 집이 없는 환자가 있다며 저희 군청으로 지원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환자의 퇴원을 돕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었는데, 김병욱 선생님이 환자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 진료부 소화기내과 김호동 과장



- 아들이 하루하루 상태가 좋아지는 걸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심하게 지켜보며 처방해 주신 덕분에 개개 때 건강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명분이십니다.
- 여러 가지 검사도 환자의 입장에서 같이 상의하여 결정해 주시니 불안감이 없어지며 증세도 좋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 진료부 신경과 신대수 과장



- 119구급차에 실려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신대수 과장님의 빠른 판단과 정성 어린 치료로 위기를 넘긴 50대 가장입니다.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주신 과장님과 성가롤로 병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번이었음에도 주말에 중환자실에 들러서 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시고, 병동에 입원 중일 때도 늘 잔잔한 미소로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주서 헬기 이송된 대동맥 박리 환자 생명 구해



5월 11일 밤 9시경 우리 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방헬기로 이송된 초응급 환자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지역의 경계를 허문 권역 응급의료의 거점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40대 환자 A 씨는 2022년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에서 대동맥 질환 진단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약물치료를 이어오던 중, 최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인근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병명은 ‘대동맥 박리’였다. 심장에서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찢어진 것이다. 그러나 제주 현지에서는 수술 인력의 부재로 대응이 불가능하여 우리 병원으로 긴급 전원 요청이 접수되었다. 대동맥 박리는 치명률이 매우 높고 분초를 다투는 질환인 만큼 우리 병원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팀과 마취팀 등 응급 수술을 위한 의료진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제주소방헬기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곧바로 수술실로 이동되었으며, 심장혈관흉부외과 오상기·오정우 과장의 집도 아래 수 시간 동안 긴박한 응급 수술이 진행되었다. 밤을 지새운 사투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박명옥 병원장은 “야간에 발생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여준 우리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지역의 경계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최종 치료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장 긴박한 순간, 성가롤로병원이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 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전문성-공공성-연계성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컨트롤타워



성가롤로병원 | 진료 일정 안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진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